

임미영(서울신대)

## 1. 들어가면서

번역자들에게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은 흔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속어이다. 잘못된 번역은 단어나 혹은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훼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언어는 문화와 역사가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로 쓰인 소설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어 곤욕을 치루거나 바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본다. 얼마 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국어 자막에 오류가 있어 크게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동시대의 언어가 이러한데 고대의 언어로 기록된 문서들의 번역은 더 많은 반역을 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별히 구약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오랜 기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www.kci.go.kr

언어였으며 그나마도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이 언어는 고대 이스라엘, 나아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성장하였기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세계임에 틀림이 없다. 덕분에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자들은 구약성경의 많은 용어와 단어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와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에게 적당한 단어가 없을 경우 영어나 중국어 번역<sup>1)</sup>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들은 나무나 꽃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흔한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성 열매인 올리브나 그 기름이 생소했던 시기에 유사한 열매였던 중국의 감람 나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와는 달리 기름이 추출되는 열매는 아니다. 살구꽃이나 종려나무의 번역 역시 잘못 된 번역으로 열대성 견과류인 아몬드와 야자수과의 대추야자 나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번역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도 역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는 다른 배경의 언어이기에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게 될 때 신학적 해석의 맥락이 보다 폭 넓어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고대 이스라엘 혹은 근동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의 바른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허락된 지면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채색 옷, 다락, 산당이라는 세 단어만을 그 예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연구방법과 연구사

구약성서 번역의 문제점을 제시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어의 어원과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에서 그 뿌리를 찾아 새로운 번역을 제안해 왔고 여전히 이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1)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비평』 51(2013년).

가장 일반적인 작업일 것이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은 다양한 고대 유물을 세상에 드러냈고 그동안 생소했던 성서시대의 문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덕분에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나아가 근동의 문화적 흔적과 성경적 내용을 접목하여 킹(Ph. King)과 스태거(L. Stager)는 “*Life in Biblical Israel*”<sup>2)</sup>에서 영어 성경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단어나 용어가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최근 야마우치(E. Yamauchi)와 윌슨(M. Wilson)은 “*Dictionary of Daily Life in Biblical and Post-Biblical Antiquity*”<sup>3)</sup>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일상적 용어들의 바른 의미와 함께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그들 역시 사전을 펼치는데 의미를 두었지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학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두 자료는 본고를 논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

국내에서 새로운 번역에 대한 작업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성경원문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 학술지는 성경 원문과 성서 언어, 한국어 번역 성경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통해 깊은 원문 이해와 좋은 성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원문연구」도 여전히 성서 원어의 어원과 문법에 관련된 연구가 많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고고학적 흔적을 통해 원어가 의미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의 바른 번역을 시도했던 노력은, 본고의 저자가 2009년 10월 25호에 투고한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מִבְּרַעַם**는 무엇인가”가 유일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락”이라는 용어의 번역에 대한 제언을 위해 재활용될 것이다.

2) 필립 킹/로렌스 스태거, 「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옮김) (서울: CLC, 2014). 원저는 Ph.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3) E. Yamauchi and M. Wilson, *Dictionary of Daily Life in Biblical and Post-Biblical Antiquity*, (Peabody: Hendrickson, 2017).

본고는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락된 지면이 많지 않아 많은 단어의 번역을 제안할 수는 없다. 한국어 성경은 물론 영어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잘 못 번역된 채색 옷, 다락, 그리고 산당 세 단어만을 예제로 기술할 것이다. 먼저 각 단어가 등장하는 성서의 배경을 살펴보고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와 기원을 조사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에서 발견된 흔적에서 이 단어가 해당되는 유물과 문화적 관습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에는 우리말로 바른 의미의 단어의 제언을 통해 보다 깊은 성서원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언되는 단어 중 성서의 의미를 반감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한국어가 아닌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락의 경우는 신약성서에서의 제언도 시도할 것이다.

### 3. 제언

#### 1) 채색 옷(כתנת פסים)

성서에서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아 결국 질투와 비방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이다. 야콥은 노년에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물론 형들의 질투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꿈은 형제들과 부모마저 요셉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에 대한 형들의 질투는 더 커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예로 성경은 야콥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다(창 37:3).

한국어 성서에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크토넷 파썸(כתנת פסים)’이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다말이 압논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었다. 요셉의 ‘크토넷 파썸’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반해 다말이 입은 ‘크토넷 파썸’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의 의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크토넷’은 그리스의 키톤과 같은 단어로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의복이었다. 마치

현대의 원피스처럼 생긴 이 옷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모양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신명기 22장 5절에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이 말씀에서 사용된 옷은 ‘심라(חַמְשָׁה)’로 외투처럼 걸치는 겹옷을 말한다. 겹옷이 남녀의 차이가 분명했던데 반해 실내복처럼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입었던<sup>4)</sup> ‘크토넷’에는 차이가 없었다. ‘크토넷’은 통으로 짠데 목 부분의 정면은 영어의 브이자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머리를 넣어 입도록 한 옷이었다.<sup>5)</sup>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릎까지 오는 것들을 입었다. 소매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다.<sup>6)</sup>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셉과 다말이 일반적인 ‘크토넷’이 아니라 ‘크토넷 파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성경은 이 단어를 ‘채색 옷’으로 번역했으며 영어 성경 중 KJV는 ‘많은 색깔이 있는 옷(coat of many colors)’으로 NIV는 ‘장식된 의복(ornate robe)’로 번역했다. NJB, NRS, TNK, NAB에서는 장식이 있는 튜닉으로 번역했다. RSV에서는 ‘긴 소매가 달린 옷(long robe with sleeves)’ 가톨릭성경도 ‘긴 저고리’로 번역했다. 본고는 후자의 번역에 동의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어는 색깔의 의미나 장식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썸’은 ‘파쓰(פֶּסֶם)’의 복수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sup>7)</sup> ‘크토넷 파썸’은 손바닥까지 오는 긴 소매와 발바닥까지 오는 단이 긴 원피스 형태의 옷을 의미한다. 물론 고대 근동지역에서 채색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토넷 파썸’만을 번역한다면 안타깝게도 색깔 있는 옷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말이 공주였고 출가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의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옷에 수를 놓거나 장식등을 달기도 했으며(출 28:4, 39) 기본 의복인 ‘크토넷’보다는 주로 화려한 걸

4) G.H. Mackie, "Dress,"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 Doubleday 1988), 624.

5)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의 의복 - 구약시대 의복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36호 (2015년 4월), 141.

6) J.M. Myers, "Dress and Ornament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869.

7) *BDB*, 821.

옷인 ‘심라’로 지위를 알렸다.<sup>8)</sup> ‘크토넷’이 일반적인 의복이라면 성경은 왜 요셉과 다말이 ‘크토넷 파썸’을 입고 있었음을 기록한 것일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크토넷 파썸’의 소매와 길이가 길다는데 있다.

성서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의복에 관한 많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어떤 형태의 의복이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조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겨울에 오는 비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섬유가 보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덕분에 성경 속의 의복의 명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제 ‘크토넷 파썸’의 형태가 없어 이 의복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는 난감하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율법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고고학적 자료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물들이 거의 없다. 비록 한정된 유물들이기는 하나 이집트와 앗수르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크토넷 파썸’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죽장 시대와 유사한 시대의 기록 중 이집트의 베니하산에서 발견된 크눔호템의 무덤벽화에는 이집트에 눈화장품을 팔러 가나안에서 온 외국인들이 남겨져 있다.<sup>9)</sup> 이집트인들과는 다르게 턱수염과 머리를 기르고 있는 그들은 소매가 없고 길이가 짧은 ‘크토넷’을 입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벽화에서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가나안의 신하들이 긴 소매와 길이가 긴 ‘크토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10)</sup> 여기서 우리는 상인으로 등장하는 이들의 의복이 짧은데 반해 고위층의 신하들은 길이가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므깃도에서 발견된 상아 조각에 묘사된 그림은 분명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sup>11)</sup> 군사들은 짧은 의상을 입고 있지만 왕좌에 앉아 있는 왕과 그를 보

8) 임미영, *윌글* (2015), 141.

9) C.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W. Norton 1940).

10) M.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1.* (New York: Crown Publishers, 1948), 24, 61.

11) G. Loud, *Megiddo II: Seasons of 1935-1939*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l. 238.

필하고 있는 내시들은 단이 긴 옷을 입고 있다. 이 상아 조각에 기록된 여인 역시 긴 소매와 단이 긴 ‘크토넷’을 입고 그 위에 화려한 겹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살만에셀 Ⅲ세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예후와 그의 신하들 역시 소매는 짧지만 길이가 긴 ‘크토넷’을 입고 있다.<sup>12)</sup> 니느웨에서 발견된 산헤립의 라기스 정복을 묘사한 벽부조(그림 1, 2)에서는 유다의 군사들과 일반 백성들이 짧은 ‘크토넷’을 입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짐을 가지고 가고 있다.<sup>13)</sup> 그들은 허리춤에 칼이나 도구들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그들과는 반대로 단이 긴 ‘크토넷’을 입은 이들이 앗수르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짐도 들고 있지 않고 포로의 행렬의 앞에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이 긴 옷을 입지 않았다. 활동이 많지 않은 왕이나 신하들 같은 상류층 사람들은 소매가 길고 단이 긴 옷, 즉 ‘크토넷 파썸’을 입고 있다.



그림 1. 단이 짧은 크토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라기스의 남자들, 니느웨 산헤립의 궁전, 주전 700년경(Ussishkin 1982: 77)

12) J. Reade, *Assyrian Sculp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45, 62, 63.

13)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82), 77.



그림 2. 단이 긴 크토넷 파شم을 입고 있는 라기스의 상류층 남자들, 니스 웨 산헤립의 궁전, 주전 700년경(Ussishkin 1982:77)

요셉은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양을 먹이러 나가지 않았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노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의 노동은 가축을 치거나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보다 활동이 편한 소매와 단이 짧은 원피스 같은 ‘크토넷’을 입거나 옷통 없이 스코틀랜드의 킬트처럼 짧은 치마만을 걸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흰색 린넨(한국어 성서에서는 이집트의 베옷이라고 번역되었다)으로 만든 소매와 단이 긴 옷을 입었다. 요셉이 입은 ‘크토넷 파شم’은 아마도 이 상류층의 옷처럼 값비싼 옷이었을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크토넷 파شم’을 입힌 이유는 요셉은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생계를 위한 활동은 형들에게 맡긴 채 그는 대접 받는 삶을 살라고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요셉이 도단에서 그를 미워하는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크토넷 파شم’(창 37:23)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뿐 노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의 형들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형들은 그의 옷을 벗긴 후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형들은 수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신 후 야곱에게 가져갔다. 주변의 농사꾼이나 목동들은 이러한 긴 소매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훗날 요셉이 그

의 형제들과 부모를 기근에서 구해 내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그는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과는 달리 단이 짧은 ‘크토넷’을 입고 노동에 참여해야 했을 것이다.

고대에 염색이 상당히 고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여겨 채색 옷을 입혔다는 번역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었던 ‘크토넷 파썸’은 공주인 다말이 입었던 것처럼 소매가 길고 단이 길어 노동이 적은 상류층의 의복이었다. 야곱은 요셉이 노동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크토넷 파썸’은 채색 옷에 비해 조금 긴 번역이 되겠지만 “소매가 길고 단이 긴 옷”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성서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본다.

## 2) 다락(חֵלֶב)<sup>14)</sup>

열왕기상 17장<sup>15)</sup>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 한 후 사르밧으로 왔다. 그곳에서 그는 한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했다. 그녀에게는 단지 가루 한 움큼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이 가진 전부로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기적이 일어나 가루와 기름이 그 통과 병에 끊이지 않게 되었다. 15절은 엘리야와 그 가족이 여러 날 먹었다는 언급으로 엘리야가 과부와 그의 아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곧 이어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른다. 갑작스럽게 과부의 아들의 숨이 끊어졌고 엘리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의 침상에 누였다(왕상 17:19). 엘리야는 아이를 살렸다.

본문의 ‘다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알리야(חֵלֶב)’로 구약 성서에 13

14) 본 챕터는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חֵלֶב는 무엇인가.” 『성경원문연구』 제25호 (2009년 10월), 53-72에서 저자가 이미 고고학적 발견과 토론에 대해서 집필한 바 있어 구약성서와 번역이라는 주제 아래 본고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고 확장하였다. 보다 자세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본고에서는 엘리야가 머문 공간이었던 “다락”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이다. 엘리야의 기적과 신학적 의미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번 등장한다. 사무엘하 18장 33절(위층), 시편 104편 13절(누각), 그리고 느헤미야 3장 31절(성루) 외에는 개역개정에서 모두 다락으로 번역되었다. ‘알리야’의 어원은 ‘알라(אלה)’로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그러므로 ‘알리야’는 올라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NIV 성경은 이 단어를 ‘upper room’으로 RSV에서는 ‘roof chamber’로 번역했다.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위층이라는 의미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KJV에서 번역하고 있는 ‘loft’라는 단어를 연상케 한다. ‘loft’의 경우 교회나 공장 같은 건물의 위층으로 보통 고미다락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공간은 “서양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지붕 아래 좁은 공간으로서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두는 곳이었기에 우리의 다락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다.”<sup>16)</sup> 한국적 건축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락은 안방의 한 쪽에 있는 후미진 공간으로 수장고의 구실을 했다. 다음은 한옥에서 ‘다락’이 생기게 된 과정이다.

한옥은 흙을 발로 밟아 다져만든 마당이 있고 이 마당보다 높게 널빤지 등을 평평하게 깔아 만든 공간인 마루로 올라가 안방이나 건넌방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방들의 바닥은 마루와 같은 높이에 있고 이 높아진 공간의 방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다. 안방의 다른 측면에는 부엌이 위치해 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때 안방의 온돌을 덮게 하였다. 부엌은 보통 마당의 지표면보다 50-60cm 낮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미 방의 바닥이 마당보다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엌 위의 천장은 자연히 높아지게 되고 이 높아진 공간을 이용하여 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을 “다락”이라 불렀으며 대부분 해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락은 안방의 부엌과 면해 있는 아랫목의 벽에 문을 만들어 출입했다. 때때로 다락은 방이나 침실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평균 높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고 작은 공간이어서 활동적이지 못했다.<sup>17)</sup>

16) 임미영, *윳글* (2009), 54.

17) 임미영, *윳글* (2009), 53-54.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 발견된 바에 의하면 구약성서 시대에, 심지어 신약성서 시대에 그 어디에서도 서양의 'loft' 혹은 'roof chamber' 그리고 우리의 '다락'으로 불릴만한 공간은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지방의 독특한 가옥구조와 유사한 집을 지었다. 이러한 집의 형태를 보통 "Four Room House -4방 가옥"이라 부른다(그림 3).<sup>18)</sup> 이 가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면도로 봤을 때 1층에 방이 4개 있는 집을 말한다. 돌로 만든 기둥들이 이열로 서 있어 세로로 공간을 셋으로 나눈 뒤 건물의 뒤쪽에는 가로로 긴 방이 있어 4개의 방이 되는 것이다. 중앙의 방은 땅을 고르게 다진 우리의 마당과 유사한데 매트들과 가사용 도구들 그리고 화덕이나 불을 피우던 구멍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의 온기를 위해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세로로 놓인 측면 방들은 바닥이 자갈이나 판석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았고 기둥들 사이에는 구유들이 있어 가축의 우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둥들은 지붕이나 2층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방들을 나누는 구실도 하고 있었다.<sup>20)</sup>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비가 오는 날씨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가축을 집안 1층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생활관습이었다. 1층이 동물의 거주와 저장의 구실을 한 장소라면 2층은 사람들이 생활했던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2층에서 먹고 잤다. 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에서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중앙의 기둥에 층계를 대어 사용하기도 했다. 밖에서 층계를 이용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

18)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193;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2), 486-487. "Four Room House"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가옥 구조로 이해되어 왔으나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가옥구조 형태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가옥 형태로 적용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에 대해서는 임미영(2009)를 참조하십시오.

19) 킹/스태거, 윗글, 69.

20) Mazar, 윗글, 487.

었던 구조도 발견된 바 있다.<sup>21)</sup> 2층 전체는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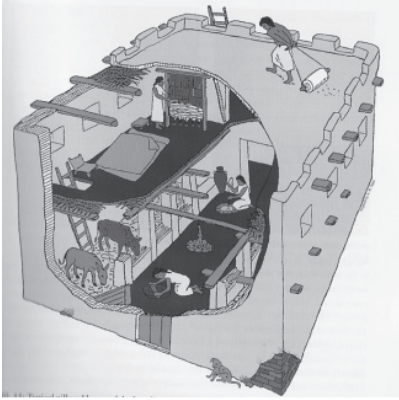


그림 3. 구약성서 시대의 2층이 있는 가옥 구조 (킹/스태거 2014: 69)

구약성서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2층 구조로 ‘알리야’는 2층의 공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의 ‘알리야’를 다락이 아닌 2층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기근에서 자신들을 구해 준 엘리야에게 가족의 거처인 2층을 내주었다. 그녀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락이라는 좁은 방을 엘리야에게 내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장소를 기꺼이 내주었다.<sup>23)</sup> 당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리라는 선포를 함으로써 반역인 취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사르밧의 위치가 현재 시리아 지중해 해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시돈 땅, 즉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

21) 킹/스태거, *윗글*, 75.

22) L.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1965), 16; 킹/스태거, *윗글*, 75.

23) 임미영, *윗글* (2009), 68.

었다. 사르밧의 과부는 YHWH가 아닌 이방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엘리야와의 만남은 그녀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을 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녀의 거처를 내 주었음을 볼 수 있다. 그녀가 기근에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에게는 집 한 채가 가진 재산 전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2층을 내어주고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있었던 1층에서 기거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의 행동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녀의 아들을 살려 줄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 숙고하게 한다.

‘알리야’를 ‘다락’이 아닌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2층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 성경 속의 몇가지 예들을 달리 해석하게 된다. 사르밧 과부와 유사하게 수넴의 한 여인 역시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작은 다락(עליית קטנה)’을 만들고 그가 방문할 때마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왕하 4:10). 여기서 ‘알리야’도 역시 2층 방으로 담 위 즉 성벽 위에 방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전 9세기경 텔 베이트 미르십이나 텔 세바 같은 도시들은 위의 4방 가옥들을 도시를 감싸도록 연결하여 마치 성벽의 역할을 하는 요새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sup>24)</sup> 아마도 수넴 성의 경우 이러한 도시들과 유사한 형태의 성벽이 있었고 성벽의 일부분인 된가옥의 2층에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고학적 자료는 일반 가옥뿐만 아니라 왕궁 역시 같은 구조의 집이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벤나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의 경우(삿 3장), 모압 왕은 ‘다락’에서 쉬고 있었다고 번역되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쉬고 있었다는 ‘알리야’를 한국적 다락으로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될 때 왕의 궁전의 한쪽 면에 있는 높고 작은 공간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에그론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쉬고 있었던 방은 작은 다락은 아닐 것이

24) Z. Herzog, *Archaeology of the City*, (Tel Aviv: Yass Archaeology Press,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1997), Fig. 5.31.

다. 그의 궁전의 현관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예훗은 에그론의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은 채 2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13-15절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 ‘불의로 지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ביתו בלא-צָרֶק ועליוֹתיו בלא משפּט)’은 ‘다락’이 아닌 거대한 2층 궁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라맛 라헬(Ramat Rahel)이라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호야김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궁전은 일부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50x75m에 달한다.<sup>25)</sup> 이미 예루살렘에 다윗 궁과 솔로몬이 지은 궁전(50x25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여호야김이 지은 2층으로 이루어진 큰 궁전을 지었다.<sup>26)</sup> 그가 불의로 지은 것이 그저 다락방이었다면 예레미야는 굳이 여호야김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 우리의 ‘다락’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다락 역시 달리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다락은 헬리어 ‘아나가이온(ἀνάγαιον)’으로 집의 위층(a room in the upper part of a house)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는 큰 다락방에 준비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 12-15절에 예수의 승천이후 제자들이 계속해서 유하며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장소로 보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물론 구약성서시대와 신약성서시대의 시간적 간극이 적어도 500-600년 이상 있지만 신약성서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다락이 아닌 2층으로 지어진 집을 짓고 살았다. 로마의 영향으로 1층에도 사람이 살기도 했지만 2층이 주 거처였다. 현

25) Y. Aharoni,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59 and 1960* (Rome: Universita'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2);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Universita'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4).

26) 임미영, *윗글* (2009), 68-69.

대 아파트처럼 로마의 인술라 역시 5-6층의 건물로 짓기도 했지만 건물의 주인은 주로 2층에 거주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마가라 히는 요한이 마가 복음의 기록자요 베드로의 구전을 받아 쓴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가가 당시 글을 이는 사람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지식층이었던 마가의 집에는 큰 다락방, 즉 그와 그의 식구들이 거주했던 2층 방이 있었고 120명의 사람을 수용할 만큼 컸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좁은 공간에 비집고 앉아 만찬을 나누는 예수와 12제자를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장소인 2층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유월절 만찬 자리를 기꺼이 내어 준 마가의 모습을 상상해 봐도 좋을 것이다.

### 3) 산당(בְּמִזְבֵּיחַ)<sup>27)</sup>

구약성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업적 중 종교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왕하 18:3-4). 요시아 시대에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계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왕하 23:8). 히스기야와 요시아 모두 그들의 종교개혁에 있어 ‘산당’을 허무는 장면이 등장한다. ‘산당’의 한자는 ‘山堂’으로 정확한 의미는 산신을 모시는 곳이다.<sup>28)</sup>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산당’은 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장소들이 대부분 산이나 언덕에 위치해 있는 것이 관습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산당’은 높은

27) 본고는 번역에 관한 연구이기에 산당의 신학적,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28) 산당, 표준국어대사전.

곳에서 있는 작은 성소로 생각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에서 '산당'은 반드시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산신을 모시는 곳도 아니었다.

한국어 성서에 '산당'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마(בַּמָּה, 복수 바모트 בַּמּוֹת)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하는지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정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적어도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례가 행해졌던 넓은 마당에 세워진 연단"<sup>30)</sup>으로 다른 곳보다 높고 그 위에 제물을 놓거나 신상을 세운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 한국어 성서에서 '산당' 즉 높은 곳에 있는 성소로 번역한 이유는 KJV, NIV, RSV 모두 '바마'를 'High Place'로 번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표현(삼상 9:19)은 자연스럽게 '바마'가 높은 장소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영어 성서도, 한국어 성서도 높은 곳의 성소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요시야가 허물어 버린 '바마'의 경우 성문 왼쪽에 있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성문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마'가 언덕이나 산에만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바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 지방의 합법화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sup>31)</sup> 다윗과 솔로몬도 기브온의 '바마'에서 제사를 지냈다(대상 16:39-40; 왕상 3:3-4). 당시의 '바마'는 아마도 고대 가나안의 관습처럼 넓은 광장에 연단을 쌓아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형태였을 것이다. 기브온의 '바마'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서 사무엘상 9장 19절에 의하면 '바마' 위로 올라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계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있을 수 있는 넓은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연대가 초기 청동기 시대로 앞서 있기는 하나 므깃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연단의 경우 지름 8m의 원형으로 높이는 1.5m였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는 아마도 이런 연단으로 이루어진 '바마'였을 것이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더 이상 지방의 이런

29) 킹/스태거, *윌클*, 422-423.

30) 윌클, 423.

31) 윌클, 424.

형태의 '바마'에서 드러지는 제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YHWH에게 드리는 제시는 예루살렘으로만 집중되었다.

남왕국 유다와 갈라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 '산당'을 지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바모트'가 아닌 '베트 바모트(בית במות)'로 단순한 연단으로 이루어진 '바모트'가 아니라 연단 위에 건물이나 돌이 서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베트 바모트'는 연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건물, 즉 신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스라엘과 나아가 근동의 신전들은 모두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연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모트'가 제물을 올리고 신상을 놓는 연단인데 반해 '베트 바모트'는 신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텔 단에서는 성소 구역이 발견되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성역이 발견되었다. 고대에는 이 위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로보암이 지은 '베트 바모트'의 일부분으로 후에 아합에 의해 보다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32)</sup>



그림 4. 벳세다에서 발견된 성문의 '바마'와 신상의 재현(Alexander et al. 2000: 48)

32) A. Biran, *Biblical Da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181; A. Biran, "Sacred Spaces: of Standing Stones, High Places, and Cult Objects at Tel Dan," *BAR* 24(1998): 40.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장소는 아니지만 그랄 족속이 살았던 갈릴리의 벳세다의 성문에서 요시야가 허문 성문의 ‘바마’를 연상케 하는 유물이 발견되었다(그림 4).<sup>33)</sup> 1.4m 높이의 현무암 신상이 성문에서 발견되었는데 머리는 빨 달린 황소이지만 몸은 사람처럼 서 있으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다. 학자들은 이 신상을 바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에는 성문 한쪽에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 이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은 성 밖의 여행에서의 안전과 성 안에서 불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였을 것이며 성문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요시야 시대에 성문에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바마’가 있었고 YHWH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려졌을 것이다.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YHWH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호 10:3 등).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YHWH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지방에서는 여전히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4)</sup>

고대 이스라엘의 ‘바마’는 산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산신을 모시는 곳도 아니었다. ‘바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YHWH에게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진 곳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방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산이 아니라 평지에도, 성문에도, 어쩌면 집안에도 연단을 마련해 놓고 작은 신상을 올린 후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은 여인상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바 있다.<sup>35)</sup> 유다 지역에서 주전 700년경부터 발견되는 기둥 몸통 여인상(Judean pillar-figurine)은 집이나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높이 20cm를 넘지 않는 점토상이다.<sup>36)</sup>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큰 가슴을 두 손으로 받치고

33) C.S. Alexander et al., “Bethsaida Rediscovered,” *BAR* 26/1(2000), 48–49.

34) E. Stern, “What Happened to the Cult Figurines?” *BAR* 15/4(1989), 22–29, 53–54.

35) 윗글, 22–29.

36) R. Kletter, *The Judean Pillar-Figurines and the Archaeology of Asherah* (Oxford: Tempvs Reparatum, 1996).

있는 모습을 한 여인상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아래 부분이 퍼져 있지만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바닥이 편평하다. 앞부분만 정교하게 표현했을 뿐 뒷면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신상은 집안의 단상, 즉 작은 “바마”위에 올려져 있어 사람들은 앞부분만을 보고 풍요를 염원하는 바람을 빌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마’는 마치 우리의 ‘서낭당’처럼 고유어로 번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낭당’은 토지와 마을을 지키는 서낭신을 섬기는 장소로 마을 어귀나 마을 언덕에 위치해 있던 전통적인 한국의 성소이다. ‘바마’가 반드시 산에 있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서낭당’의 위치 역시 마을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다. ‘서낭당’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 ‘seonangdang’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마’ 역시 ‘산당’이 아닌 ‘바마’로 번역하고 각주를 달아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놓거나 신상이 올라가 있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연단”으로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트 바모트는 오히려 신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듯 ‘바마’처럼 히브리어에 대한 적당한 단어가 없을 때 무리하게 번역을 시도하기보다 원어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4. 나가면서

때로 우리는 한국어로 기록된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단어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적어도 3,000년-2,500년 전에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기후, 지형, 문화, 역사를 배경을 가진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보다 좋은 성서 번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원과 문법에 대한 좋은 번역은 많이 시도해 왔지만 고대 문화 속에서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찾아 번역을 시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고는 구약성서에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

었던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아닌 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스라엘의 관습과 흔적을 고찰한 후 보다 바른 이해에 접근하고자 했다. 선택된 단어는 요셉의 채색 옷, 엘리야의 다락방,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허문 산당으로 채색 옷은 ‘소매와 단이 긴 옷’으로 다락방은 ‘2층 방’으로 ‘산당’은 히브리어 고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바마’로 번역한 후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놓거나 신상이 올라가 있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연단”이라는 각주를 달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하여 보다 깊은 성서 원문 이해의 장을 넓히길 기대해 본다.

## 5. 참고문헌

BDB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2007)

다락, 산당「표준국어대사전」(서울: 국립국어원, 2008)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היכל*는 무엇인가,” 「성경원문연구」 제25호 (2009년 10월), 53-72.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의 의복 -구약시대 의복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36호 (2015년 4월), 135-164.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비평」 51 (2013년).

필립 킹/ 로렌스 스테거, 「고대 이스라엘 문화」(임미영 옮김) (서울: CLC, 2014). 원제는 Ph.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Aharoni, Y., *Excavations at Ramat Rabel, seasons 1959 and 1960* (Rome: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2).

———., *Excavations at Ramat Rab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Uni-

- versita'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4).
- Alexander, C. S. et al., "Bethsaida Rediscovered," *BAR* 26/1(2000): 48-49.
- Biran, A., *Biblical Da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 ., "Sacred Spaces: of Standing Stones, High Places, and Cult Objects at Tel Dan," *BAR* 24(1998): 38-45, 70.
- Davenport, M., *The Book of Costume Vol. 1*. (New York: Crown Publishers, 1948).
- Herzog, Z. *Archaeology of the City* (Tel Aviv: Yass Archaeology Press,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1997).
- Kletter, R. *The Judean Pillar-Figurines and the Archaeology of Asherah* (Oxford: Tempvs Reparatum, 1996).
- Loud, G., *Megiddo II: Seasons of 1935-1939*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2).
- Mackie, G. H., "Dress,"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 Doubleday, 1988), 624.
- Myers, J. M., "Dress and Ornament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869.
- Netzer, E.,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ir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 Reade, J., *Assyrian Sculp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Sachs, C.,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 W. Norton 1940).
- Stager, L.,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5.

Stern, E., "What Happened to the Cult Figurines?" *BAR* 15/4 (1989), 22-29,  
53-54.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82).

Yamauchi, C. and Wilson, M., *Dictionary of Daily Life in Biblical and Post-  
Biblical Antiquity* (Peabody: Hendrickson, 2017).

검색어

성서시대 문화 이해

히브리어 번역

채색 옷

다락방

산당

## Suggestions for Translating Hebrew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in the OT Period

MiYoung Im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ar-Ilan University Ph. D.

Hebrew of the Old Testament was not a spoken language for a long time, and the constant debate about exactly how to read and understand it continues to this day. In addition, this language had grown up in the culture and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also in the ancient Near East, so it must be quite unfamiliar to foreign countries. Bible translators who translated Hebrew to Korean in earlier time seemed to have relied on English and Chinese translations when they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words in Korean, while not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context underlying the many terms and words of the Old Testament. However, English and Chinese also have different backgrounds from the culture of the ancient Israel, so they could not convey the full meaning of Hebrew.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text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becomes better when we have

[www.kci.go.kr](http://www.kci.go.k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in the ancient culture and customs.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original language rather than our cultural background by selecting some words that have been used so far in the Old Testament, and to approach the understanding more properly after considering the culture and customs of ancient Israel. First,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Bible in which each word appears, and we examined the meaning and origin of the Hebrew word. Next, we looked at the artifacts and cultural conventions of this word found in ancient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At the end, new words in Korean have been suggested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words. The chosen words are Joseph's 'coat of many colors,' 'the upper room' of Elijah, and 'high places' destroyed by Hezekiah and Josiah. The 'פסים כתנה' translated into 'coat of many colors' has the meaning of clothes that cover the hands and feet, suggesting 'a long robe with long or short sleeves.' Joseph's 'כתנה פסים' would have made his brothers more jealous because such robes were worn by the upper class who did not work. 'עלייה' translated as 'attic' was a space where people reside, meaning 'second floor room' in houses of ancient Israel. The fact that Elijah stayed in 'עלייה' at the house of widow at Sarbath means that she did not conceal Elijah in the space like the attic but gave up her place of residence. In addition, when Mark's large attic room of the New Testament is on the second floor, 120 people could gather together to pray in such a room. 'במזיח', translated as 'the high place of mountain gods,' is neither in the mountains nor in the place of the mountain gods. If there is a gateway, a house, and a pavilion where sacrifices can be held everywhere, it can soon become 'במזיח'. Therefore, in order to make use of the original meaning of Hebrew, it was suggested to attach a footnote to 'bamot', which is a "traditional podium in which sacrifices are placed and performed in ancient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 Keywords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in the Bible times

translating Hebrew

coat of many colors

upper room

high places

- 투고일: 2018년 7월 2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http://www.kci.go.kr)